

“내 아이 인생 시험에 코로나라니”...안타까운 모정 ‘발동동’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별도시험장 가보니

“수능을 앞두고 (딸이)코로나에 걸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내 탓 같아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광주 남구 행암동 26지구 ‘별도 1시험장’인 인성고는 타 수능 시험장과 다른 분위기가였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만 수능을 보는 광주 2곳의 고교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응원 나온 학부모와 후배, 교사들로 들쭉인 일반 시험장과 대조적으로 인성고에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2-3개가 걸려있을 뿐이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학부모들은 감독관들의 지휘에 따라 중앙 현관 앞에서 수험생만 하차시키고 신속히 빠져나갔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한 수험생들은 차에서 내려 시험장에 입실했고 걱정되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섞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학부모들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녀를 떠나보내야 했다.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들이 차를 빼라는 수신호를 보내자 부모들은 그제서야 가족페달에 발을 올리며 뒤편로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들만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응시하는 수험생 수도 적었고 학교 앞에는 인

방역복 감독관·구급대원 배치
인성고서 33명 중 4명 응시 포기
드라이브스루로 수험생 내려주고
시험 전날 밤 확진판정 날벼락도
아들 둘 확진된 학부모 걱정 태산

적을 찾을 수 없어 적막함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이날 인성고에서 수능을 치루기로 예정된 수험생은 총 33명이었지만,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교육청에 미응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9명의 수험생들만 시험장을 찾았다.

시험장은 방역복을 입은 16명의 감독관들이 질서정연하게 통제를 했다. 시험장 안 한편에는 흑시모를 위급상황에 대비해 구급대원도 배치됐다.

수험생들은 중앙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손소독을 진행하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건넨 뒤 시험실로 향했다.

수능시험 전날 밤 10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한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구토증상을 보여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교실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으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옆

교실을 준비해 둘게요”라고 안심시켰다.

오전 8시 10분께 29명의 수험생들이 입실을 완료하자 학교문은 닫히고 주변은 썰렁해졌다. 몇몇 학부모는 자녀가 이미 입실한 뒤에도 걱정된 듯 다시 학교를 찾기도 했다.

수능 전날 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최경진(여·56·광주시 남구 임암동)씨는 “수능시험장이 원래 대상어고였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갑작스럽게 인성고로 변경됐다”면서 “(딸이)코로나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최씨는 “100%의 컨디션으로 응시해도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첫째가 재수를 하면서 아들 두명을 수험생으로 둔 아버지의 마음도 천근만근이었다. 김용호(52·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첫째는 4일 전 확진받고 둘째는 3일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재수생인 첫째가 특히 긴장도 많이 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아이들에게 수능시험에 부담을 주는 부모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아들들이)혹 실수하더라도 이번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노력한 만큼 능력껏 치루고 나왔으면 좋겠다”며 시험장을 떠나지 못한 채 서성였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아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별도시험장인 광주 인성고에 입실하고 있다.

경찰 도움 시각 수험생 “휴”...시험장 앞 교통사고로 병원서 응시

수능 현장 이모저모

17일 코로나 유행 이후 세번째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시험도 차분한 속에서 치러졌다.

시험장 앞에서 코로나 이전의 때처럼 응원원은 볼 수 없었지만 수험생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과 교사 등의 발길은 이어졌고, 시험 시간에 늦은 수험생들이 경찰 등의 도움으로 고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여전했다.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4시험장인 서구 화정동 광덕고 앞,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은 어느 때처럼 뜨거웠다.

학부모들은 차 안에서 자녀에게 영양제를 먹이고, 도시락과 수험표 등 빠진 것은 없는지 챙겼다. 교통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 정차를 통제했지만, 1초라도 더 응원하고 싶은 학부모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 학부모들은 시험장으로 씩씩하게 들어가는 자녀 뒤에서 두손을 모아 기도를 하거나 화이팅을 외치며 땀을 지켜냈다.

문성고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시험장 길을 따라 나선 강수인(여·49·남구 봉선동)씨는 30분이 넘도록 정문을 바라보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군대를 제대한 강씨의 큰 아들도 올해 수능준비를 하면서, 형제가 지난 1년 동안 서로 약한 과목을 알려주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강씨의 이야기다. 강씨는 “부모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형제가 열

지적장애 판정 아들 간절한 격려
손수 만든 피켓 들고 아이들 응원

심히 공부를 했다”면서 “아들들이 준비한 만큼 힘을 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고 3학년 아들을 둔 이미라(여·43·서구 쌍촌동)씨의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5년 전 경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수능을 보러 나섰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른 형제도 수능을 본 적이 있어 편장을 줄 알았지만, 막상 막내아들 수능날이 되자 긴장되는 것은 여전하다”면서 “아들이 어려움을 견디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원하는 바리스타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웃어보였다.

○이색 응원전 경쟁은 없어졌지만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대동고 3학년 담임 윤한솔씨는 광덕고 정문에서 제자들이 보일 때마다 두 팔을 번쩍 울리며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윤씨는 시험장을 찾은 제자마다 어깨를 두들기고 안아주며 ‘긴장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윤씨는 “매년 수능 때마다 아이들이 느끼는 중압감이 상당하다”며 “긴장하지 말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린이들의 깜짝 응원전도 있었다. 엄마 정보경(여·40·서구 화정동)씨와 함께 시험장을 찾은 최철(9)군과 최을(6)군은 수험생들을 볼 때마다 자

신의 몸통만한 피켓을 흔들었고, 일부 학생들은 웃으며 손인사를 해주기도 했다.

정씨는 “아이들이 수능날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해 데리고 왔다”며 “이들 전부터 피켓을 손수 만들어 들고 왔다”고 말했다.

○지각 수험생은 여전했고 시험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수험생도 있었다.

순천시 조례동 금당고 앞에서는 수험생 A(21)씨가 정문 앞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발목에 부상을 입고 순천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이 수험생 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유턴을 하다 옆을 지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늦은 수험생들을 시험장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광주·전남 경찰의 수능 특별수송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교통경찰, 기동대, 모범운전자 등 총 379명이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섰다.

112 등에 도움을 요청한 광주·전남지역 수험생 수십명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지하철을 잘못 내려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을 광주 남구 설월여고까지 태워주고, 시험장인 서석고 대신 석산고를 찾은 학생을 순찰차로 수송하기도 했다.

해남에서는 긴장으로 잠을 설쳐 늦잠을 잔 수험생을 7분만에 시험장으로 옮겼고, 장성에서는 순찰차로 2.4km의 시험장까지 5분만에 수험생을 수송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음주운전 꼼짝 마...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전남경찰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월·금요일

일 야간에는 전남도내에서 일제단속이 진행된다.

음주단속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도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유지하면서 11월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면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근절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 투기’ 손해원 벌금 1000만원 확정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해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을 미리 알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에서는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h1>토지 매매 (담양)</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3>▶ 담양 프로방스 앞</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h3>*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광주</td> <td>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td> <td>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td> <td>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td> </tr> <tr> <td></td> <td>북구 신안동 (공장) ▶ 감평가 13억 → 최저가9억2천</td> </tr> <tr> <td></td>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16억</td> </tr> <tr> <td></td> <td>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 → 최저가 2억8천</td> </tr> <tr> <td></td> <td>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평가 20억 → 최저가 7억</td> </tr> <tr> <td></td> <td>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평가 17억 → 최저가 12억</td> </tr> </table>		광주	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평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평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평가 17억 → 최저가 12억
광주	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평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평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평가 17억 → 최저가 12억																
<h2>010-6670-9800</h2>	<h2>010-2614-9801</h2>																